

# ICID 제48차 IEC Meeting 및 제18차 유럽지역회의에 참가하러서...



김 선 주

KCID 기계화관개분과위원장  
ICID 기계화관개분과위원  
건국대 교수

지난 9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영국의 옥스퍼드(Oxford)에서 개최된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제48차 집행위원회의 및 제18차 유럽지역회의에 KCID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였다.

이미 작년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있었던 ICID 제16차 총회 및 제47차 집행위원회의에서 오는 2001년 ICID 제52차 집행위원회의 및 제1차 아시아지역회의가 서울에서 개최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와 같이 대표단 전원이 회의유치를 위해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이미 유치해 놓은 행사를 차질없이 치르기 위한 관련정보 및 자료수집,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의진행의 전반적인 흐름을 각 분야별로 파악하고 많은 회원국들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우리 대표단에게 주어진 과제였다.

9월 7일 일요일, 현지시각으로 오후 5시. 런던 Heathrow 공항에 도착하니 공동연구 수

행차 Wallingford 수리연구소에 나와 있던 농진공 농어촌연구원 어대수 박사가 직원과 함께 소형버스로 마중을 나와 주었다. 평소 자주보던 어대수 박사를 만나니 그날은 한층 더 반가웠고 덕분에 편하게 옥스퍼드까지 갈 수 있었다.

런던 북서쪽에 버스로 약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옥스퍼드는 우리가 익히 아는바와 같이 세계적인 대학도시로서 도시 총인구 115,000여명 중 학생수가 15,000여명이다.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는 지금부터 약 800년전 헨리 2세가 프랑스의 파리로부터 다수의 학자들을 불러들여 문을 연 이래 많은 석학들을 배출해오고 있다. 옥스퍼드대학교는 36개의 단과대학(Colleg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일행은 그 중의 하나인 Christ Church College의 기숙사에 숙소를 정하게 되었다. 5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고색창연한 캠퍼스에 4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

며 옥스퍼드가 배출한 25명의 영국수상 중 13명을 배출한 최고의 명문이다

회의 첫날인 9월 8일 월요일 아침. 우리 일행은 숙소로부터 걸어서 5분 거리인 Examination School에 설치된 등록처에서 미리 발부 받은 등록번호를 제시하고 ID Card와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회의자료 등을 배부받은 후, 일부는 9시부터 시작하는 IEC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일부는 오랜만에 만난 각국의 대표단들과 바깥의 인사말을 나누었다. 이어서 오후에는 분과위원회회의가 5시까지 계속되었다. 우리 대표단은 회의장 곳곳에 서울에서 열리는 2001년 ICID 제52차 집행위원회의 및 제1차 아시아지역회의의 소개책자를 배치

하였다.

9월 9일 화요일. 오전에 제 18차 유럽지역회의 개막식 및 주제연설에 이어 종일 논문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아울러 오후에는 각 분과위원회와 아시아지역분과위원회의가 열렸다. 필자는 이근모 단장 및 정병호 박사, 여운식 박사와 함께 아시아지역분과위원회의(Asian Regional Working Group; ARWG)에 참석하였다. 이날 열린 아시아지역분과위원회의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및 이스라엘을 신규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 현재까지 가입이 안된 기타 아시아 나라들의 가입을 독려하기로 하였다. 또한 IRRI, FAO, IIMI, IP-TRID, World Bank를 Permanent Observer로 하고, 기타 ADB, IWRA, ESCAP, IFAD, Mekong River Commission, ICARDA, INPIM 등에 Permanent Observer 신청을 촉구하였다. ARWG의 의장은 매 3년마다 ICID 총회에서 선출키로하고 ARWG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The general objective of the Asian Regional Working Group is to focus on common topics and issues and to enhance the trans-

fer of appropriate technology in irrigation and drainage to and from the Asian Regions. The mission of ARWG is to encourage membership and to coordinate activities in the region."

또한 아시아지역에서 개최될 각종 회의에 대한 일정이 토의되었고, 2001년 한국에서 개최될 제1차 아시아지역회의의 주제를 「Agriculture, Water and Environment」로 결정하였다.

이날 저녁에는 내년 제49차 IEC 및 열번째이자 마지막 아시아-아프리카 지역회의를 개최할 인도네시아 관개배수위원회(INACID)가 주재하는 Indonesian Evening이 Oxford Town Hall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으며, 인도네시아의 관개배수, 그리고 풍습 및 관광지 등을 소개하는 비디오 상영과 함께 인도네시아 음식이 약간씩 제공되었다.

9월 10일 수요일. 각 분과위원회의 및 IEC 회장단 회의, 유럽지역회의 분과위원회 등이 열렸으며 필자는 소속분과인 기계화관개분과위원회의에 참석하여 ICID에서 출간한 "Guidelines for Selection

Irrigation Systems"의 한국어 번역판 출간에 합의하였다. 이날 저녁 우리일행은 옥스퍼드역 근처의 Paddy Field라는 중국식당에서 완탕, 볶음밥 등을 먹으며 그동안 양식때문에 느긋느긋했던 속을 달랠 수 있었다.

회의 나흘째인 9월 11일 목요일. 오전에 IEC 기술활동상 임위원회에 이근모 단장, 정병호 박사와 함께 참여하여 한국의 베트남지원 현황보고 등을 하였고, 오후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Wallingford 수리연구소를 방문하였다. Wallingford 수리연구소는 정부기관이었으나 현재는 민간기업으로 전환하여 수리 및 수문과 관련된 각종 계측기와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수리 및 수문모형 실험의 단독 또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시설의 임대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저녁에는 Oxford Union Society에서 ICID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영국의 Jone Hennessy씨가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의회 토론방식으로 「경제재로서의 물관리」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9월 12일 회의 마지막날. IEC 회의가 North School에

서 열렸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줄곧 관심사항이었던 신입 부회장 선거가 있는 날이기도 했다. 회의초에 Tajikistan, Kazakstan 이 ICID 신규회원국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9명의 부회장 중 3명의 임기가 다함에 따라 9개국에서 추천된 후보들 중 중국의 Qishun Zhang 교수, 영국의 Mr. Peter S. Lee씨, 남아공의 Mr. D. S Merwe씨가 ICID 본부측의 제안에 따른 회원국들의 동의로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동안 대만관개배수위원회의 회장인 Hsu박사를 부회장으로 만들기 위해 작년년부터 노력해온 대만 대표단은 허탈감에 빠져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거대한 중국의 벽에는 역부족이었다.

주최측에서 배부한 회의참가자 명단에 의하면 금년에는 주최국인 영국을 제외하고 48개국에서 400여명이 참가하였으나, 예년에 비해 참석인원이 약간 적은 편이었다. 이날 저녁 영국관개배수위원회 주최로 회의를 마무리 짓는 송별 리셉션이 Christ Church Hall에서 있었는데 각국의 대표단이 서로 뒤섞여 밤늦게까지 우정을 나누었다. 필자는 일본관개배수위원회 회장인 다니야마 박사, 미슈대학의 나가노 교수와 한일간의 농공학교 등에 관

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는데 경상대학의 이근후 교수께서 이스라엘에서 온 분이 필자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나고 싶어한다고 하여 쫓아가 보니 이스라엘 관개배수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Yehuda Shevah 박사였는데, Shevah 박사로부터 필자가 1980년대 초에 공부했던 Volcani Institute 연구원들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다.

9월 13일 토요일. 공식 회의는 끝났고 유일한 자유시간! 모처럼 갖는 자유시간을 우리 일행들은 런던 시내 구경에 투자했다.

9월 14일 일요일. 3박 4일간의 West County Study Tour가 시작되었다. 견학안내는 이번에 부회장으로 당선된 Peter씨가 부인과 함께 맡게 되었는데 큰 키에 서글서글한 분이였다. 첫 행선지로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의 하나라는 Bath를 방문하였다. Bath는 로마시대의 온천장이 유명하여 지금도 지하 깊숙한 곳에서 뽑아내는 온천수를 마실 수 있다. 걸어서 시내를 돌아본 후 Bristol에 있는 Redwood Lodge Hotel에 짐을 풀고 저녁식사 후에는 Environment Agency로부터 사업내용을 소개받았다. 피로가 쌓여서 그런지 OHP로 발표하

는 도중 많은 분들이 하품을 하거나 조는 모습으로 보아 시간선택이 잘못된 것 같았다. 10시 반이 넘어서야 지리한 설명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와 지친 몸을 누일 수 있었다.

9월 15일 월요일. 아침일찍 Burrow Mump 꼭대기로 올라 농림성 및 Environment Agency 관계자들로부터 Somerset Levels and Moors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다. Somerset Levels and Moors는 배수불량의 저습지가 겨울철에 침수되어 철새들의 도래가 감소하게 되자 배수개선사업을 통해 이를 해결한 생태환경보존의 대표적인 곳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어서 근처에 있는 West Sedgemoor 배수펌프장을 견학하였는데, 이 펌프장은 2차 대전 당시 식량증산을 위해 Somerset Levels and Moors의 저습지 배수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건설되었다고 한다. 또한 Bridgewater에 있는 Environment Agency의 Noth Wessex Area Office를 방문하여 간략한 설명과 함께 이곳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점심을 들었다. 오후에는 Glastonbury 성당유적을 관광하였다.

밤12시경 서울의 집에 전화를 걸어 추석차례 준비에 바쁜

집사람과 통화를 하였다. 팔순의 아버님께서 일가친척과 차례를 모실 생각을 하니 조상님들께 미안한 마음이 간절하였다.

9월 16일 화요일 아침. 오늘은 Clifton의 현수교를 견학하였다. 이 다리는 19세기 영국 기술자들을 대표하는 Brunel이 건설한 것으로 그 기술적인 우수성과 더불어 주변의 경관과 매우 잘 어울리는 걸작이었다. 이어서 S. S. Great Britain호를 견학하였는데 이 배는 1843년에 이곳 Bristol에서 건조된 세계 최초의 증기선으로 수십차례의 대서양 횡단 및 멀리 호주까지 운항한 경력이 있는 영국이 자랑하는 철선이다. 지금은 박물관 및 식당으로 개조되어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지가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후에는 Wales의 끝에 있는 대서양 연안의 항구도시 Cardiff를 방문하여 방조제공사 현장을 견학하였다. 저녁에는 ICID 회장인 Aly Shady씨와 우리 일행의 몇분들과 함께 환담을 하였는데 워낙 말씀씨가 좋고 박식한 분이러 이야기가 끝나질 않았다. 이집트 태생의 그가 캐나다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일을 하며, 동시에 ICID 회장이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9월 17일 수요일. 이번 행사의 마지막 날이다. 모든 짐을 챙겨 버스에 싣고 Severn Bore를 보기 위해 아침 7시 반에 Gloucester 근처의 Stone Bench로 향했다. Severn Bore는 해수위 상승에 의해 갑자기 조류가 좁은 하천에 밀려드는 것으로, 현지에 도착한 시각은 8시 반, 너무 일찍 도착한 것 같았다. 그냥 기다리기가 무료하니까 몇분들은 언제 Severn Bore가 시작하는지 1파운드씩 내기를 걸어 맞추는 사람이 갖기로 하였다. 얼마를 기다렸을까? 조용한 강물위로 모터보트가 유유히 하류로 내려갔다. 지루한 기다림 끝에 “시작이다!”라는 소리가 들려 다급히 왼쪽 하류를 쳐다보니 정말 장관이었다. 하천의 수위가 2미터도 넘게 솟구쳐 상류쪽으로 짓쳐들어오고 있었다. 솟은 물위로 한사람이 파도타기를 하고 있었다.

지루했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Severn Bore가 시작된 시각은 9시 36분으로 내기의 당첨금은 미국의 Schaack씨 부인이 났다. 노부인이 마치 어린아이 같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에 참 좋았다. Severn Bore를 견학한 후 근처 마을에서 간단한 휴식을 취한 후 유명한 Sudeley성을 관광하고 Buckland에 있는 유리온실을 견학하였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다시 옥스퍼드로 돌아오는 버스속에서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우리 일행은 저녁 5시 30분에 버스터미널에서 Heathrow 공항행 버스에 올랐다. 12일간 아무탈 없이 건강하게 여행을 마친 호뭇함과 함께 행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영국측 인사들에게 감사드린다. 우리도 오는 2001년 행사를 훌륭하게 치를 것을 다짐해 보면서 우리 일행은 귀로에 올랐다.

